



국민의힘 서구 제5선거구

이 중 호 의원



“청렴·효율·전문성을 갖춘  
대전교육청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이 중 호 의원

### ◎ 이중호 의원

서구 제5선거구 둔산동에서 온 시의원 이중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먼저 교육감님께 시정질문드리기에 앞서 의원이 되고 이 자리에 서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간략한 소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면책특권은 저희 지방의원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리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말할 수 있다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큰 자유를 누리는 것에 따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는 시정질문들도 마찬가지로 큰 자유를 누리는 것에 더해 저와 교육감님 모두 그 발언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서 오늘 조심스럽게 시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청렴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부분, 대전 에듀힐링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교육사업 때문입니다.

교육청에 3개의 국이 있고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국은 아마 교육국이겠지요,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청렴도, 민주시민교육과 모두 행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사업이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기획국과 행정국에 대한 부분, 행정에 대한 부분은 현업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해서보다는 행정사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돌이켜보니 교육사업이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가 적절하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교육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사 문제, 계약 문제 등등 직원들의 사기를 해치고 대전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대전시교육청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존재들, 수많은 주체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행정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들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 않은 주제 없습니다.

전부 다 이미 한 번씩 다 다뤘던 주제들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께 긍정적인 답변들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제가 똑같은 주제를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역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님의 확약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육청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수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이중호 의원** 매번 나왔던 이야기지만 청렴도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시다시피 청렴도는 측정결과라고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하지요.

보통은 평가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측정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문항을 해서 우리 교직원이라든지 외부청렴도에서 전화나 설문조사에 의해서

응답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참고해 보니까 그때 내부에서 표집한 것이 6,678명입니다.

그런데 응답한 것이 몇 명이나면 310명이 응답했습니다.

6,678명이 표집인데 응답자는 310명.

4.6%가 응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외부청렴도는 2,657명인데 273명, 10.3%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서 청렴도를 측정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전교육청은 사실 그런 면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한 대전교육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구성원이라든지 외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좀, 인식시키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내부청렴도 6,678명 중에서 310명이 응답했는데 응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전교육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거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측정결과라고 해도 공정성이라든지 타당성,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해서 앞으로 대전교육청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구성원의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청렴정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조금 쫓기다 보니까 다음부터 답변 조금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모집표본 자체가 조금 적다는 문제도 있고 해당 부분들이 모두 주관적인 설문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렴도라는 건 물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한 인식의 문제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이 부분이 권익위에서 했던 5년 동안의 설문결과입니다.

아마 이 표를 보시면, 아래쪽 표를 봐주시면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것은 증감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처음에 그것이 눈에 띄지만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2021년도의 숫자 절댓값 그 자체입니다.

공사부터 업무지시의 공정성까지 항목들이 있는데 물품에 대한 부분을 빼고는 절댓값 자체가 현저히 낮습니다.

심지어 6점대도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설문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 10점 만점 혹은 5점 만점을 한다고 할 때

6점, 7점 받았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참한 점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표를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력을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점 초반대, 8점 중반대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원인분석이 아마 여기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져오는 자료들은 없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공개된 자료에 근거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제가, 박주화 위원장님께서도 과거에 요구를 하셨던 자료이고, 교육청에서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식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청렴하다는 내·외부인식 부족’과 첫 번째 내부 외부에서 청렴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됨’, 아마 이 부분도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구성원과의 소통 문제라고 지금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모든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우리가 정책을 잘하고 있는 면을 많이 부각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모든 면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문제가 이렇게 늘 논란의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대전교육가족은 우리 모두가 대전교육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서로 상호존중 문화도 마련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조사의 문항은 직장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돼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식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드리다면 금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평가하는, 측정하는 청렴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주관적 설문인 청렴도가 60% 반영되고 객관적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40%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청렴도가 상승될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이중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안 그래도 제가 좀 이따가 짚으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관실의 자료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계속해서 즉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인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결과는 주관적이었고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에서 원인을 찾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인식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게 교육청에 있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잘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물론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요, 제가 교육감님의 말씀을 따다가 표현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못되었다, 사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어떠한 시스템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청렴도가 낮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인식에 대해서 탓합니다.

구성원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청렴도 결과가, 청렴도에 대한 조사 자체가 주관적이어서, 인식 때문에, 청렴도 모집표본이 낮아서,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청렴도 지금 하루이틀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2017년이면 언제인지 사실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교육청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에 변화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공사와 인사업무, 그냥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인식을 부족하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공사 그리고 인사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인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교육전문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시지요.

또 교육행정직, 교육청에 계시는 행정직원분들이십니다.

두 부분에서 인사가 크게 나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던 중등교원인사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거는 권익위에서 한 게 아니라 교육청 내부에서 한 설문이지요?

유초등교원도 있는데 제가 중등교원과 가져왔습니다.

중등교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이 부분 역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까 표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왼쪽에 잘 보시면 2022년도에는 표본이 373명이지만 그 전년도는 1,100명씩 됩니다.

절대 적지 않은 표본입니다, 교육청 직원을 생각하면.

하지만 점수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80점대 그리고 심지어 70점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처음 봤을 때도 교육청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구나,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있는 교원전문직이 아닌 교육청에 있는 행정직분들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숫자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인식 문제니 표본 문제니 그런 걸 떠나서 점수 자체가 너무 처참합니다.

우리가 통상 만족도 표시,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밥 시켜 먹고서 보통 10점 중에 7점을 줄 때 어떨 때 7점을 줍니까?

엔간히 악의를 품으면 1점, 2점을 주겠지만 악의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때 6점, 7점을 줍니다.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 나와 있는 행정직들에 대한 인사만족도 점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점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도 수치 제일 마지막 하단에 나와 있지요?

항상 80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러한 수치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본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절댓값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교육청의 시스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확실한 혁신을 교육감님께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교육청에서는 인사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또 교원인사관리원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미흡한 부분은 보강해서 시스템을 더 완비해서 아주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인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단순히 반복성 감사 그리고 질타성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인사시스템이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다는 대안들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롯이 인사권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의 의지가 없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도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 내에서 인사권자가 누가 계십니까?

교육감님 말고 다른 인사권자가 계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거버넌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과에는 일반구성원이 있고 계장,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평이라든지 모든 건 종합적인 바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 모든 국,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야 합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건 교육감이 하겠지만 모든 직장이 마찬가지로, 시청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위에서 결재는 하겠지만 총체적인 그러한 인사는 같이 이루어 가는 거지 교육감이 단독으로 이뤄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는 현재의 교육청 상태를 생각한다면 인사에 대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교육감님의 인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최종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최종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는 거지요.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교육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이중호 의원**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도 교육감님 의지에 달려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역시 교육감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과장님 근평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라도 그분들께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육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사라는 것은 교육청이라고 하면 교육감님, 시정이라고 하면 시장님에 대한 의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청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서 난도질하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에 있어서 현재까지 이래왔으니, 현재까지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어 왔으니 교육감님께서 미래의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구성원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 본인이 긍정적으로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 모든 분위기,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제가 조금은 순화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물론 제가 이번 자리에서 인사와 계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면 교육감님, 교육청에 대해서 외부 인사, 외부 사람이나 외부 조직에 의한 인사청탁 그리고 고위직 간부에 대한 근평 문제, 전자철판 관련된 구매 의혹들, 급식실의 오븐기 관련된 급식실 물품 관련된 의혹들, 학교 요즘 그린스마트스쿨 해서 18조 원 들어가지요,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각급 학교 공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교육청 내 그리고 교육청 외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성비위, 성추문들과 그것들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 이것들 중 하나라도 교육감님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것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항목들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 하는 것 있으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지요.

◎ **이중호 의원** 전부 다 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지금 순화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 거고 사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전까지 교육감님께 이런 내용들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가 꺼내지 않고 교육감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왜 인사 문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 문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중호 의원** 맞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종적인 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인사 문제는 별통 같아서 제가 건드려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저한테 도움 될 것 없고 제가 이런다고 누가 칭찬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건드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에는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소위 여러 가지 루트, 길드, 방법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육청 직원분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교육청을 생각해서입니다.

당연히 청 내에 있으면 교육감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외부에 의한 인사청탁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시스템을 갖추길 원합니다.

어디선가 인사청탁이 들어왔을 때 인사청탁을 받은 분께서 ‘정말 해주고 싶지만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객관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냥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고 인사청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깨끗하다.’ 저는 그런 부분이 갖춰지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마음인데 정말 교육감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어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대전에서 있다가 대학 가면서부터 서울로 올라간 친구인데 대전시장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서 무려 3선이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이중호 의원** 3선이라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처음 취임하시던 해에, 부임하시던 해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이 교육감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마치고 나가실 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나갑니다.

대전에 있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보면 학생의 가치관, 사상, 인성이 길러지는 초·중·고

12년 동안 설동호 교육감, 대전교육청 밑에서 학습을 받고 그렇게 아이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저보다 교육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서가 아니더라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교육감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3년 반, 4년 가까이 남았지만 4년 후에 교육감님께서 마치고 나가실 때 과연 대전교육청에, 대전교육에 무엇을 남겨주고 가실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마지막 3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지요.

세 번째 이번에 3선 하시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역점적으로 역량을 쏟고 가셔야 할까, 저는 이 인사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를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교육감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직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교육청 직원분들 말씀해보면 교육감님에 대한 애정,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직원분들이 교육감님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함을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일로 내가 능력과 성과를 보여주면 연공서열, 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나의 능력으로 보답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이 문제 해서 제가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불편한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대전교육청에 대한 애정으로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애정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감님의 의지가 당연히 확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그런 마음 지키셔서 남은 3년 반, 4년 동안 교육청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하여튼 공정한 인사, 모든 면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대전교육청이 그런 면에서도 모델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중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문제이고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의원분들 모두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말씀하신 부분 큰 힘에 큰 책임이 따르는 그 말씀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 계약이 있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계약이 있고 단위학교에서 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전자칠판 말씀드렸는데 전자칠판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교육감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떠드는 얘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칠판 할 때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런데 거기에 발표하는 심사위원들 무작위로 추첨해서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누가 거기에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전자칠판을 구입했고 일선 학교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근거도 없는 말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떠드는 소문에 의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 **이중호 의원** 예, 저도 교육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여러 소문들, 일종의 추문들이지요, 유언비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마음들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한 얘기들 자체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인사에 대한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전자칠판을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 전자칠판 선택을 할 때 선호도평가를 했었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이중호 의원** 선호도평가를 할 때 선호도를 측정하는 위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명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요.

◎ **이중호 의원** 예,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당연히 교육청에서 3명이 들어갔었고 학교 선생님들 포함해서 외부 인원으로 해서 8명인가 들어가서 총 11명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 **이중호 의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호도평가 전체 100점 중에 5점밖에 안 되지만 아시다시피 물품계약 0.1점 단위, 0.01점 단위로 나뉩니다.

전자칠판 같은 계약을 한 번 할 때 100억씩 합니다, 100~150억씩 계약을 하지요.

100억~150억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것들에 대한 계약을 한 10명 내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숫자가 적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거는 물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원에 대한 풀을 확실하게 몇십 명 확 가져가고 선정위원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랜덤투표를 해서 선정을 해갑시다만 그러한 인원 자체를 확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밤에 그냥 제가 단순히 구상해본 거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자칠판 같은 거는 수요자가 학생이니까 일선 학교에서 무작위로 학생들 30명~5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선호도평가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선호도평가에 학교 교장 선생님, 선생님만 참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꼭 학생을 참여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원수 자체를 늘리는 건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후에 AS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발표할 때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입증할 만한 내용을

발표해야 되겠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AS 역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갖추면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향된 점수로 해서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적절한 선정위원을, 인원수를 더 증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정확하고 알차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중호 의원** 지난 정부에서 그린뉴딜 시작하면서 교육부 관련해서는 그린스마트스쿨이 내려왔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총 18조 5천억,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입니다.

전자칠판도 조금 전 공사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니 직원들의 인식이 조금 낮았는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시작하면서 전자칠판 포함한 부분, 각급학교에 대한 공사 부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 단위학교에서 어떤 계약이나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와 감사원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대단위 계약들,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어마어마하게 기금을 쌓아둔 것도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기금 사용 계획을 보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사용계획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약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시급한 시일 내에 조속하게, 선정인원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단위학교들로 계약을 내려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건 현업에 계시는,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현명한 방법을 택해서 앞으로,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의혹 자체, 추문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계약은 감사원과 교육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이행하도록.

그런데 장단점은 다 존재합니다.

어떤 물품이라든지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통합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든지 교육기관에 어떤 것을 설치할 때, 계약을 맺을 때는 필요한 것을 분석해서 통합계약을 하든지 또 단일학교 계약이 있지요.

그래서 단일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일학교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물어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께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 계약에 대한 부분,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해 주셨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들으셨고,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교육청의 청렴도를 위해서 그리고 구성원들, 가족 같은 구성원 아납니까?

구성원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이중호 의원**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 민주시민교육과 언제 우리 교육청에 생겼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2020년 10월 1일 자로 개편했습니다.

◎ **이중호 의원**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었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 **이중호 의원** 교육부는 언제 생겼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교육부에서 생긴 것은 구체적으로 날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 **이중호 의원** 제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도 1월 개편으로 학교혁신지원실 산하에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1월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육부에서 학생생활문화과라고 있었습니다.

학생생활문화과에서 사무분장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가 2018년도 1월 자로 민주시민교육과가 들어왔지요.

교육감님 그러면 지금의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9월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중호 의원** 예, 올해 9월 자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이것은 어떤 것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성체육예술교육과가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가 전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다가 현재 민주시민교육과를 조직개편한 시·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타 시·도 말씀입니까?

◎ **이중호 의원** 예.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중호 의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교육혁신과로 이름을 바꾸었고 대구시가 미래교육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인천시는 동아시아시민교육과지요, 경기도가 미래인성교육과로 바꾸었고 충청북도가 학교자치과로 바꾸었습니다, 경상북도가 학생생활과로 바꾸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많은 시·도가 정부기조에 맞춰서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을 빼고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도 민주시민교육과에 관련된 부분들, 정부방향에 맞게 조직개편할 의사가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에 대한 콘셉트,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민주시민 하면 잘못하면 항의하고 항거하고, 잘못하면 투쟁하고, 이걸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민주시민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민주화된, 민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나 모든 백성이나 모두가 같이 이루어나가는 것이, 행복과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민주시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시민은 뭘니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뒷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의사가 있으면 결정된 사항들은 서로 협력해서 몸을 바쳐서 최대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입니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활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민주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민주시민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세계화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세계 모든 국가에 있는 세계인들과 협의하면서 소통 협력하면서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제가 보는 관점은 민주시민에 대한 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것을 정확히 내용을 알고 그런 개념을 정리해서 모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를 많이 체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합당할 만큼, 민주시민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 모든 면에서 고려해볼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민주시민교육 하면 우리 교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중호 의원** 저도 교육감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주시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좀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감님께서 바라보고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민주시민의 정의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감님 계셨던 지난 12년 교육, 그 이전까지 모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주시민에 근거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왔겠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학생자치, 아이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 이런 모든 것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대안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도 민주시민은 모두가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저는 민주시민에 대한 정의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 생각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 우리 대전교육청도 기존에 학생생활교육과였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이중호 의원**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 이유까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까 그 말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 대안교육, 생활교육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 **이중호 의원** 교육감님,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교육부의 정책을 지방 교육청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기조에 맞춰서 현재 쓰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이름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쭙보는 겁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성원 의견도 듣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중호 의원**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써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이중호 의원** 다음은 에듀힐링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육감님 이 부분은 제가 공간에 대한 문제보다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모두 다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은 특정 어느 장소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간을 따로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 공간을 따로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중호 의원** 내년도 중에 사업계획이 정해져서 내후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을까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내년도 2023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후년도쯤에는 이제, 내년에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장소 이전이라든지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에듀힐링센터는 대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만든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학생과 교원,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모든 컨설팅,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상담 하면 일반적으로 고민만 해결하는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은.

그건 컨설팅이고, 그다음에 코칭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고민이 있는, 고통이 있는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서 그 고통을 풀어주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코칭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에듀힐링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정보원 4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연수실 이런 모든 것을 보강해서 에듀힐링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중호 의원** 안 그래도 교육감님께 에듀힐링센터에 대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